

#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23호(96/1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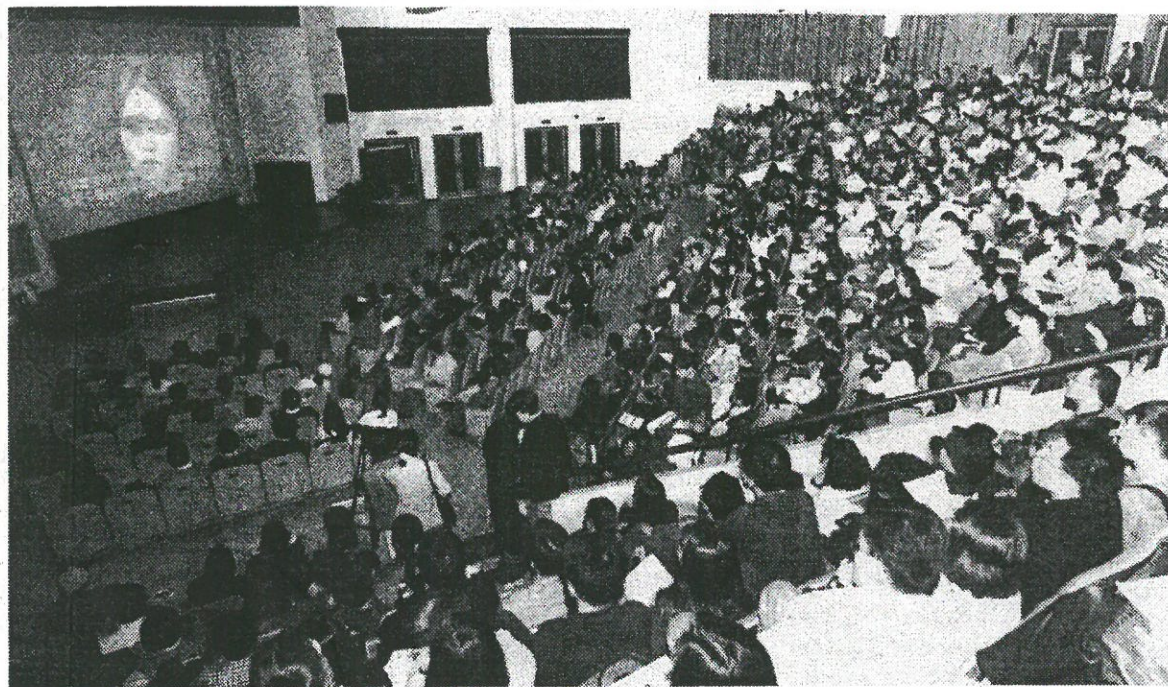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



오랫동안 준비되었지만, 누구도 자신하지 못했던

인권영화제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인권영화제는 많은 이들에게 인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했고, 인권운동사랑방을 선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도움  
덕택이었습니다. 인권영화제 지방 16곳에서 계속됩니다.

\* 이번 호에는 인권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장의 운영위원회 공고를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여기에 실는 관람기는 서울 인권영화제를 관람한 뒤 자신들의 감상을 직접 작성해 보내온 것 중에 고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인권영화제를 어떻게 보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이후 인권영화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람기는 이후 영화제 후원인 소식지에 실을 것입니다.

관람기 · 1

## 제1회 인권영화제를 보고

정미라(회사원)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에서 조지 샬더스의 “무관심은 문명사회의 가장 큰 저주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며.

이 말은 인권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3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인권’이라든가 사회의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한 영화들의 상영에 큰 의미를 갖는 이가 매우 적다. 솔직히 나의 경우도 인권 영화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었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이 더 커서 짝 짜여진 직장생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었다. 모든 작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았던 몇 편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또는 우리 자신이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유린당했으며, 세계의 여러 곳에서 민족분쟁이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또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 그들의 생존권과 생활권 기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심수 김성만’의 석방을 위해 랩가수등 많은 서양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문제를 다룬 뮤직 비디오의 출연자들이, 찍는 사람이,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들이어야 하는가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 영화제에 참가하면서 크게 느낀 점을 두가지만 들고 싶다.

첫째는 기록영화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영화 자체로서도 얼마나 훌륭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비 밀크의 시대」나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등 여러 작품들이 여느 극영화 못지않게 진실성과 감동, 시사하는 바가 컸다.

둘째, 영화 속에서 많은 용기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비 밀크, 조지 셀더스, 이들의 행적은 누가 보아도 정말 용기있고 신념있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러나, 「악마의 자식들」, 「유령을 부르며」, 「당신의 이웃집 아들」 등등 여러 작품들에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삼키며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고,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 여성들, 또 자신의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과감히 드러내며 영화를 만들게 해 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정말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계급도 낮고, 무지하지만, 지금도 많은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오늘날, 미래에는 더욱 이런 용기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나의 사람됨을 되돌아 보게 된다.

이런 소중한 영화제가 이루어지게 준비하고 진행시킨 많은 관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다.

끝으로 한가지 바란다면, 소위 ‘언론’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상기하고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관객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장인들과 사회인 등, 다양한 관객층이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인권영화제에는 많은 일반인들의 관람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관람기 · 2

### 끝과 시작

안춘훈(시민)

어떤 벗들은 인권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 구체적인 말이다. 사실, ‘인권’ 자체는 가치 판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적하여 정의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말에 ‘침해’나 ‘탄압’ 또는 ‘유린’이란 말을 덧붙여 보면, 즉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권유린이란 합성어가 되어 제시될 때, 우리의 관념 속에 막연하게 맴돌던 인권이란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권이란 말이 그 자체로는 매우 추상성을 띠면서도 왜 인권탄압을 통한 ‘인권’은 구체성을 띠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특정한 개인의 인간성을 부정하기 때문이요, 그가 내뿜는 고통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오기 때문이요, 탄압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 <특집> 인권영화제 결산

수 있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는 것이다. 양심수에 대한 정치적 인권탄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지역차별과 학력차별, 인종차별, 성차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서 자연적 권리를 누릴 기회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과제를 떠맡았다. 그것은 근 30년간 나름대로 세워 왔던 가치관을 모두 허물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금기사항을 허물고 들어오는 세력으로부터 “왜 그것은 안되는가?”란 질문에 “...해서 안된다”는 답변의 근거를 찾는 일이다. 그 답변이 막연하게 “과거부터 그랬고 현재의 다수가 그러니 안된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금기사항을 허물고 들어오는 자를 논쟁에서 이기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금기사항 그 자체를 분석하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치의 기저를 흔드는 박수를 보냈고 또 실제로 한국의 동성애자모임 대표가 나와서 자신들의 이 영화에 대해 많은 관객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고, 또 실제로 한국의 동성애자모임 대표가 나와서 자신들의 입지를 인권차원에서 주장할 때 많은 찬성의 환호가 있었기에 필자는 당황했다. 밀크의 살해범을 살인범으로 공정하게 처단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란 메시지를 수용하는 관객, 또 사회적 터부에 도전하는 것이 인권차원으로 다뤄진다는 것이 내게는 큰 혼란이었다. 누가 내게 답해 줄 것인가? 그럼, 사회적 터부인 근친상간은 왜 안 되는가? 왜 내 돈을 내가 맘껏 쓰는데 비난하는가? 왜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는 금기시되는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형식으로 인권이란 문제를 다룬 이번 인권영화제를 계속 지켜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또 많은 잃었다. 그간 튼튼하게 버텼목이 되었던 중요한 가치관들이 ‘편견’일 수도 있음을 알았다. 더구나 이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껏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고 또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느끼면서 살아갈 내 자신이 또 다른 이들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심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제가 나의 가치를 허물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허물어진 편견의 벽 사이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다. 6일간 20여편의 영화를 통해, 또 증언자의 말을 통해 볼 때, 그 이정표는 분명 “인본주의”였다. 나는 “인본주의”라는 한 가닥의 실마리를 잡고 지금 내 자신의 기존가치들과 싸우고 있다. 아마 이 싸움이 끝나면 ‘골수 우파 보수 논객’이란 나의 애칭도 사라질 것이고 ‘남성우월주의 심각히 오염된 소피스트’란 악칭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때 또 어떤 충격이 나에게 가해질지 모르지만 무척 기다려진다.

## 제1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끝나

-지방 영화제는 12월말까지 계속-

‘인권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인권’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영화제는 술한 화제를 낳은 끝에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인권영화제가 치뤄지는 일주일 간, 총 1만 5천여명의 관객이 다녀가 여느 영화제보다도 많은 인원이 관람을 했으며, 영화제에 대한 평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것은 인권영화제를 준비한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측면이었고, 이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엔 치뤄질 제2회 인권영화제는 어떻게 치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결산은 하지 못한 상태지만, 대략적으로 이번 인권영화제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인권문제를 수준높게 다룬 상영작품들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높이고,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품은 <잊지 말자>였습니다. 이 작품은 국제 앰네스티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에서 만든 작품으로 특히 후반부에 코스타 가브리엘 감독이 만든 한국의 김성만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킨 <전장의 여인들>이나 동두천 미군기지촌의 여인들의 삶을 미국까지 건너가 추적한 <이방의 여인들> 등 다수의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소수자, 고문, 평화, 언론, 장기수, 노동자, 국가폭력 등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의 전반을 고발한 32편의 작품들은 모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상황을 잘 몰라 깊은 이해는 하지 못했을 지라도 어쨌건 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으로 꼽은 동티모르 학살을 기록한 <한 민족의 죽음>, 미국 동성애 운동의 선구자인 하비 밀크의 생애를 그린 <하비 밀크의 시대>, 미국의 언론인인 조지 셀더스의 생애를 그린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는 기록영화의 진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 2. 부대행사를 못 치룬 아쉬움-영화제 진행상의 문제점

우선, 인권영화제라고 하니 많은 이들은 영화제의 수준을 ‘운동권’의 열악한 문화제의 그것으로 생각했던 같습니다. 시종일관 비내리는 화면, 잘 들리지 않는 음향, 작은 화면, 불충분한 자막 등을 걱정했던 같습니다.

그러나, 상영관이 이화여대의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 외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상영관(법정대 강당)의 시설이 기대 이상이었고, 화면도 비교적 깨끗했으며, 음향도 상당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관객이 몰린 일요일의 경

## <특집> 인권영화제 결산

우 폭신한 의자와 깨끗한 시설이었던 법정대 강당이 아닌 학관의 두 곳-시설도 지저분하고, 의자도 딱딱한 나무의자이며, 스크린, 음향등 모든 것이 불충분함-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영상이 빔 프로젝트로 투사되는 비디오 화면이라는 것 외에 대형화면을 가득 채운 긴박감 넘치는 장면들, 깨끗한 음향에 많은 이들이 만족했습니다. 자막처리도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음향에 잡음이 들어간 것-이것은 기자제가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과 상영중에 많은 이들이 소란스럽게 오고 간 것-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관람객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등이 옥에 티였습니다. 또한, 학교측에 계속되는 각 기관-안기부, 경찰, 문체부, 교육부, 구청-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측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공식 입장으로는 불허통보를 했으며, 이에 따라 개폐막제가 실내 행사로 축소된 점, 폐막식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가 낙후한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부대행사로 기획되었던 인권세미나와 감독초청 행사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사진전 외에는 부대행사를 역량의 한계상 치뤄내지 못한 점은 특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매일 10여명의 이화여대 학생을 비롯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을 도와주었고, 영화제 기간 이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영화제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 3. 지방영화제와 뒷정리

거의 2주일 동안을 <인권하루소식>의 발행과 그와 연관된 문제 외에는 사무실 인력이 모두 영화제에 투입되는 바람에 많은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일로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행히 재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원금과 해설서, 팸지, 포스터 판매 등이 이번 영화제 들어간 재정을 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제가 적자 상태를 면할 정도가 된 것은 누구보다도 운영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인 지원 덕택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는 지방영화제를 책임지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해 영화제집행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방영화제 일정은 마지막 장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호에 보다 자세한 인권영화제 결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민주언론상 수상

<인권하루소식>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총연맹이 제정한 민주언론상의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중배 선생님의 추천으로 수상 결정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로써 <인권하루소식>은 창간 이후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은 아니지만,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닐 수 수 없어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상식은 오는 26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있습니다.

##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목록

\* <편집자주> 96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무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자료를 상임위별로 묶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에 맞추어 제본할 예정이니 인권정보자료실(715-91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 ◆ '91년-현재, 구속되어 있는 시국공안사범 현황
- ◆ 92.1월 이후 '96.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내역
- ◆ '92.1월 이후 '96.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구속현황(구체적 구속이유를 적시하되, 긴급구속을 포함하여 구속당시와 공소이유가 변경되어 처리된 현황 및 무혐의 처리된 현황, 구속적부심 등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석방된 명단 적시, 안기부, 경찰청 등에서 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하되 구분하여 적시)
- ◆ '94. 1. 29 주사파 관련 공안관계기관 대책회의 이후 '96. 9. 현재 주사파 관련자로 처리된 사건
- ◆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 내역
-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불고지죄 위반사범 구속자 처리현황 (92.1.1- 96.8.31)
-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기소 처리
-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연도별 발생 및 사범처리현황 (92.1.1- 96.8.31)
-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연도별('93-'96.8.31) 발생건수·인원 및 처리내역, 구형량 대비 1심·항소심 선고현황 (1/2미만, 이상 구별)
- ◆ 노동사범 기소 처리
- ◆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범 기소 처리

### ==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법

- ◆ '94, '95, '96년의 연도별 국제사면위원회 유엔인권기구 및 미국무부가 발간한 한국의 인권실태 보고서 사본 및 이들 보고서 중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법무부의 반박 내용(반박 이유서가 없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적시할 것) 및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정부에 인권과 관련하여 보낸 건의서, 항의서 등에 대한 답변서 사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대응, AI 인권보고서에 대한 대응, 국가보안법관련 대응자료, AI 인권보고서 대응자료, 국제인권단체에서 인권관련 건의서와 항의서에 대한 대응, 해외인권관련 편지 설명자료 등 )
- ◆ '96.8.5~23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제8차 정기보고서(영문, 한글)> 및 한국대표의 “국내인권기구설치 검토”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견해와 추진현황
- ◆ 고문방지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 가입현황 (조문별 미가입 내역 등을 적시)
- ◆ 고문방지협약 중 문제조문 검토
- ◆ 국제인권규약(B)에 대한 유보철회 의견
- ◆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 제출의 의미와 문제점
- ◆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전투행위 참가) 검토
- ◆ 유엔 인권이사회,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 UN 불법구금실무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안과 우리정부의 조치사항
- ◆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차 정기보고서
- ◆ 인권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 검토 업무와 관련 주요업무실적
- ◆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 유엔인권위원회의 각종 의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표결내용 (의안, 찬반여부에 대한 입장발표 내용, 표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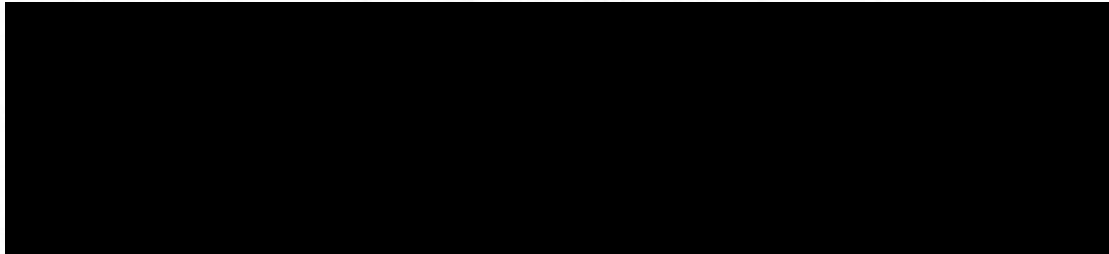
# 96-10분기 재정보고

('96 10/16-11/15)

전기이월 -3,365,504원

| 수 입  |             | 지 출    |            |
|------|-------------|--------|------------|
| 회비   | 2,586,500   | 활동비    | 3,620,000  |
| 구독료  | 2,184,700   | 사업비    | 60,000     |
| 후원금  | 3,450,000   | 발송비    | 287,960    |
| 사업수익 | 1,817,000   | 사무비품   | 498,870    |
| 기타수익 | 2,204,540   | 사무실유지  | 619,749    |
|      |             | 자료구입   | 80,000     |
|      |             | 식대(야근) | 100,800    |
|      |             | 전화요금   | 791,750    |
|      |             | 사무기기   | 54,000     |
| 계    | 12,242,740원 | 계      | 6,113,129원 |
| 최종결산 | 2,764,107원  |        |            |

<96년 10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제 34차 운영위원회 공고

- 일시: 11월 29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안건: ㄱ. 영화제 결산보고  
 ㄴ.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ㄷ. 과거청산위원회 참여의 건 등

\*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참석 저조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여합니다.

## 지방영화제 일정

|               |               |
|---------------|---------------|
| 구미 11.23~24   | 원주 11.23~28   |
| 청주 11.25~12.1 | 춘천 11.25~28   |
| 수원 11.29~12.1 | 인천 11.30~12.4 |
| 전주 12.1~12.4  | 대전 12.7~9     |
| 대구 12.2~5     | 부산 12.10~15   |
| 광주 12.10~14   | 마산 12.12.~19  |
| 제주 12.18~22   | 안산 12.20~24   |
| 구리 12.14      | 성남 미정         |

\* 상영 장소는 아직 확정된 곳이 적은 관계로 생략합니다.